

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은 철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



▲ 협신농장 이해영 사장

동 물복지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.

국내 HACCP 인증 받은 산란계 농장은 대부분 무창계사를 설비해 최신자동화시스템을 갖추고 있다. 이 가운데 외형상 첨단시설을 추구하기보다는, 20년 전 설비한 유창계사에 2단 케이지로 자동집란벨트나 계분벨트 하나 설치하지 않고도 우수한 축산물 생산에 자신감을 보이는 농장이 있다. 친환경인증은 물론 강원도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에 이어 금년 HACCP 인증 첫 산란계 농장이기도 한 강원도 철원 소재 협신농장(사장 이해영)이 바로 그 곳이다. “깨끗한 축산물은 첨단화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,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된다.”는 이해영 사장을 만나 그가 추구하는 사양관리에 대해 들어보았다.



▲ 유창계사 2단 케이지로 한 동당 산란계 3천수~9천수 사육. 항생제 대체제로 황토, 키토액, 생균제를 첨가해 급이. 34주령 87%의 산란율을 보이며 최신시설에서 사육하는 것과 생산성에 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.



▲ 육추실

계란, 영양적 가치에선 최고

이해영 사장이 계란과 가까워지게 된 것은 20대 초 한창 젊은 나이에 폐결핵 진단을 받으면서부터다. 폐결핵 환자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때부터 처방약과 함께 신선한 계란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완쾌되었고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계란 덕이라고 자부한다.

20년 전 사육방식 그대로 추구

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에 소재한 협신농장은 1만평 부지에 계사 18개동으로 사육규모에 비해 넓은 부지와 많은 축사를 갖추고 있는 점이 이 농장의 특징이다.

눈에 띠는 점은 1980년대 말에 설비한 20년 전 유창계사를 그대로 유지하고, 케이지도 당시 사용하던 2단 케이지로 일명 재래식 사육방식을 고수하고 있다. 따져보면 동당 평균 5,500수 사육으로 동당 10,000수에서 100,000수까지 사



▲ 유창계사 18개동

육하는 초대형 현대식 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식수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. 이 같은 이유는 단순히 평당 사육수수를 늘려 밀집사육을 한다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, 쾌적한 환경에서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보다 덜 주는 것이 친환경 사육이 아니겠냐며 또한 만의하나 전염성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. 그 뿐 아니라 동수를 다양화해 산란 초기부터 말기까지 다양한 주령에서 왕란부터 경란까지 골고루 생산해 한 품목의 과잉생산 혹은, 부족을 막아 언제나 원하는 상품을 납품하고자 한다.



▲ 계란선별실–난각에 이물질이 많은 것은 세척을 통해 별도로 납품하고, 대부분은 ‘무항생제, 무세척, 무코팅’ 등 ‘3無 원칙’으로 생산



▲ 깨끗하고 건강한 협신농장 계란, 3개월에 한번씩 계란 이물질 검사 진행



▲ 협신농장은 계란소비를 추진하기 위해 자체 홍보물 제작



▲ 2월부터 출시하는 협신농장 브랜드 '참조은달걀'

계사 내부시설 역시 과거 방식 그대로를 고수한다. 20년 전에 비해 사육규모는 커졌지만, 계란이송벨트를 이곳에선 볼 수 없다. 9명의 직원은 매일 오전 전 계사를 돌며 직접 수작업으로 집란한 계란을 계란선별실에서 각 중량별로 특·대·중·소·경란으로 분류해 출하하고 있다. 이해영 사장은 계란이송벨트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계분이나 닭털 등 이물질이 쌓여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 며 파란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전한다.

친환경인증은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

이해영 사장은 “축산은 최첨단 시설이 아닌, 최고의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이 원칙이다.” “좋은 환경, 맑은 공기, 청정한 수질 등 스트레스 받지 않는 조건에서 사육하는 것이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길”이라고 전한다.

사육에서 중요한 것을 끊자면 ‘환기’라고 말한다.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며 이 같은 이유로 유창례사를 고집할 뿐 아니라 적절한 생균제를 급이해 호흡기 질병에 원인이 되는 메탄가스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자 한다.

한편, 질병 예방을 위해 농장입구에 철저한 소독관리와 함께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구서작업을 실시하며, 철저한 백신작업으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있다.

협신농장이 HACCP인증을 지정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다. 강원도 ‘물방울’, 철원군의 ‘두루웰’, 농산물품질관리원의 ‘친환경농산물인증’에 이어 금년 산란계 부분 HACCP 지정농장 제 1호로 인증받았다. 앞으로는 강원도 내에서 사육하며, 3년간 질병발생이 없는 이력으로 인증하는 ‘청정농장인증제’를 준비하고 있다.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닌, 사육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면서 인정받는 축산물이 최고의 축산물이라고 강조한다.



▲ 폐기물이 될 수 있는 계분을 자원화하기 위해 300평 규모의 계분처리작업장에서 톱밥과 함께 자연 발효시켜 퇴비로 생산

바람

이해영 사장은 “계란의 완전식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. 영양가 많은 단백질 식품, 이제는 완전보다는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해야 한다.”고 말한다. 어릴 적 할머니가 계란은 손주에게만 주던 귀한 식품이다.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면, 얼마나 좋은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.

앞으로는 협신농장도 직접 홍보에 나선다.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한 우리 축산물, 계란을 상품출원해서 직접 판매 할 계획이다. 겉으로 보이

는 오래된 축사는 구식이고 비위생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, 철저한 관리로 강한 내실에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해영 사장을 통해 단순히 현대화시설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.

취재 | 장성영 기자
ch-spirow@hanmail.net



▲ 계란선별실에는 적외선 조명을 설치해 오염요소 살균
◀ 선별작업에 사용하는 장갑 등은 매일 적외선 소독기로 살균

